

## 거룩한 누룩: 거룩한 호기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13:33)

허명수(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 I. 들어가며

인간의 지적·영적인 성장과 타락의 배경에는 호기심이 있다. 어린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끊임없이 "엄마, 이게 뭐야?" 혹은 "아빠, 저게 뭐야?"라는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채우며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배워간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이뤄진다. 인간 성장과정에서 이런 호기심은 지속되지만, 나이가 들며 죽음이 다가올수록 둔화되거나 정지해 버린다. 만사가 귀찮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거나 실지로 죽음을 눈 앞에 둔 사람들이다. 이 호기심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평생 나타나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사회, 공동체의 의미와 존재와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인(成人, 聖人)으로 성장하며 변화한다.

이렇게 호기심이 인간의 지적, 영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무시하여 방치하거나 가볍게 다루게 되면, 어떤 동기나, 목적, 비전으로 이끌어지지 않고 단순한 오락에서 그치거나 잘못하면 사행성이나 퇴폐성으로 변질된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은 결국 인류의 파멸로 몰고 간 타락한 호기심이다. 이는 결국 에덴동산에서의 추방과 타락이란 인류 최대의 비극적 사건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인류의 타락한 호기심은 문화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창조물조차 더럽혀 왔다. 우리가 접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인터넷 등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데 에덴동산에서의 뱀보다 더 유혹적이다. 2008년 가정의 달인 5월 초하루부터 전국적으로 충격을 불러온 대구의 어느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성적인 호기심이 왜곡되고 타락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 중 하나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타락된 호기심을 잘 다스려 건설적이고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으로 승화시켜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과정을 걸어가야만 된다. 거룩한 호기심을 통해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화하게 하신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성화는 물론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성결하게 하는 문화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이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지적, 영적인 추진력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새롭게 조명 받아야 할 것이다.

## II. '거룩함'과 '호기심'에 대한 이해

'거룩함'이란 말은 세상에서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잘못 인식되거나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신학 전문 서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기독교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거룩함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오히려 '거룩'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하게 여긴다. 때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낸시 레이 드모스(Nancy Leigh Demoss)는 거룩함이란 단어를 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편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이 구식인 엄격하고 음울한 사람들, 규칙과 금지 규정에 따라 금욕하며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 수도사 같이 정상적인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거룩한 사람들, 자신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 현실은 무시하고 미래의 좋은 것과 관련된 불가능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것들이다 (드모스, 21-22). 사실 외향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며 자신과는 다른 초신자나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을 '홀리파'라고 놀리기도 하는 등 오히려 진지한 의미에서 보다는 비판의 대상이나 가십거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은, 미국 초기 대각성운동(1740년)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의 표현에 의하면, 오히려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가장 상냥한 것이며, 또 '인간의 영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함, 맑음, 평화로움, 매혹적인' 것이다.

성서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성결(聖潔)이나 성화(聖化)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거룩함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카도쉬(kadosh)'가 주로 사용되었다. 구약성서에 약 850여회 등장하는 '카도쉬'는 고대 근동의 셈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단어로서, 그 어원과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정결하다' 혹은 '깨끗하다'는 뜻을 가진 아카드어 '카두(qadu)'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는 구약에서 '구별하다'와 '분별하다'의 의미를 강조하여 사용되었다. 신약에서는 헬리어 하키오스(αγιο)라는 단어로 표현하였고, 영어 번역본에서는 홀리니스(holiness)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이 영어 단어는 '온전한' '건강한' '신성한' 등의 의미를 가진 할리그(halig)라는 앵글로색슨 어원에서 파생되었다. 성화(sanctification)라는 말은 라틴어 '거룩함'의 의미인 상투스(sanctus)가 그 어원인 영어 단어이다. '거룩함'의 의미가 히브리어→헬리어→라틴어→영어→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지만 이를 정리하면, 세상의 속된 것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에 속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신성한 존재, 사람, 사물, 날짜, 언어, 생각 등을 의미한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다 거룩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양 중에 선별되어 하나님에게 속한 한 마리의 어린양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세

상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될 수 밖에 없으며, 광야의 그 넓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세가 밟았던 호렙산은 거룩한 장소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곳을 구별하여 성소(the holy place; sanctum)라고 칭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또 다시 선별해 **지성소**(至聖所 the holy of the holies sanctum sanctorum)라고 불렀다. 그 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상징인 십계명, 만나 항아리, 짝 난 이론의 지팡이가 든 법궤를 두고 이를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하였다. 바로 그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속에 나타났다.

이러한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주는 단어 중 거룩함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닛시, 여호와 라파 등, 여러 능력과 인격을 묘사하는 말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모든 능력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은 영광(카보드, kabod)와 거룩함일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서로 찬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 6:3).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도록 가르치셨다 (마 6:9)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같이 영광스런 거룩함을 입게 된다. 이 세상에서는 성결 혹은 거룩함, 혹은 성화과정이 미완성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 거룩함이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룩함의 중요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명령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케 하여 **거룩할찌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20:7). 레위기 11:44-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라고 했다. 신약에서도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같은 당부를 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4). 베드로 사도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여,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15-16). 특히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반드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수 3:5). 흥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 전에 그들이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 34미터 깊이의 요단강을 건널 때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마르고 그들에게 마른 땅 위를 걸어 여리고 성 앞 길가에 까지 이르는 기이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모세가 지도자이던 초기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통해 출애굽의 사건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도 첫 사명이 바로 요단강 도하 작전이었다. 거룩한 자들에게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명한 것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할 때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 우리의 영이 그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은 거룩한 영이 된다. 루시퍼(사탄)처럼 하나님에 적대적인 영은 사악한 영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영역에서 벗어난 영은 타락한 영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속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며,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욕되게 하고 훼방할 때 사악한 영이며, 그 분과 벗어난 모든 것은 타락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호기심이 유발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그분의 '크고 비밀한 알'과 기이한 일을 이는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호기심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호기심이 붙어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호기심 자체에 자신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호기심의 포로가 된다면 이는 타락한 호기심이며, 이런 호기심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그분의 거룩함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호기심은 사악한 호기심이다. 이런 사악한 호기심은 그 뒤에서 사탄이 — 때론 보이지 않게, 때론 달콤하고 아름답게, 때론 애절하게, 때론 위협적인 모양으로 변신하여 —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유혹하고 조정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막고 있다.

### III. 호기심과 누룩의 비유

사악한 호기심, 타락한 호기심, 거룩한 호기심을 성경에서 비유로 잘 설명해 주는 개념은 '누룩'이라고 볼 수 있다. 『비전성경사전』에 의하면, 누룩은 "포도액으로 반죽된 순수한 밀기울이나 물로 반죽하여 발효할 때까지 놓아 둔 보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발효제"로 사용된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 호기심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자.

1. 무교병: 무교병이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막았던 유월절(Passover)을 기념하기 위해 먹던 빵이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였다. 이 명령을 어기고 유교병을 포함한 그 어떤 유교물을 먹을 경우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다 (출 12:19). 유월절과 비슷하게 곡식으로 하나

님께 제물을 드리는 소제물(素祭物)에도 누룩을 섞을 수 없었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 화제로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기름만 섞어 무교전병을 만들어 바칠 수 있었다 (레 21-16). 이런 의식은 상징적으로 애굽 사회에 만연한 우상숭배와 패역한 민족과 타락한 문화에서의 이탈하여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가 됨을 의미했다. 구별된 무교병은 거룩한 떡이 되었고, 유월절은 거룩한 날이 되었으며, 소제나 화제는 거룩한 의식이 되었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기념하는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애굽의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거룩한 절기가 된 것이다.

2. 묵은 누룩: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적은 누룩이 떡을 만들 때 온 반죽 덩어리에 퍼지는 비유로 영적인 타락을 묘사하였다. 이 편지를 쓰던 주후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근친상간 등의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등을 책망하고 경계하면서, 사도바울은 이러한 타락과 사악한 무리들을 '묵은 누룩(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 있는 떡으로 묘사하였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 값을 치른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들은 그런 묵은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비교하여 말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전 5:6-8)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적은 누룩'으로 비유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괴악하고 악독한" 묵은 누룩을 의미한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마 8:15).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종교적인 누룩으로서 위선과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등의 행태를 암시하신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 누룩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각종 음모와 술수를 펴는 자들을 의미하신 것이다. 이런 누룩은 바로 당시에 묵은 누룩을 대표하는 것이다.

3. 거룩한 누룩: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에서 앞의 묵은 누룩과는 전혀 다른 좋은 의미로 누룩의 개념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곧 거룩한 누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는 똑같이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 13:31-33)

예수님의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이미 서서히 확장되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것이다. 겨자씨 비유가 외형적인 확장과 물리적인 변화를 말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내면적인 확장과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누룩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4. 누룩과 호기심: 무교병, 묵은 누룩, 거룩한 누룩의 개념을 호기심에 적용시킬 수 있다. 먼저 묵은 누룩은 바로 사악한 호기심과도 같다. 이런 사악한 호기심은 순식간에 본인은 물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신속하게 퍼져 각종 죄악이 넘치게 된다.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깨끗한 호기심을 말한다. 모든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 생각, 관습, 관행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거룩한 누룩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과 호기심은 적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누룩, 즉 거룩한 호기심의 필요성이다. 거룩한 누룩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고, 성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누룩이 생긴다고 곧장 하늘나라가 회복되고 변화(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루 반죽 안에서 서서히 부풀어 올라 어느새 크고 아름다운 떡, 즉 일용할 양식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고 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나게 된다고 해서 순식간에 "크고 비밀한 일"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자라는 거룩한 호기심이 거룩한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점차적으로 하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서서히 내면적으로 변화되며 성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 IV. 호기심과 시너지 (synergy)

성화과정은 시너지, 즉 인성(지적, 영적인 호기심)과 신성(성령)의 연합을 통해 더욱 촉진된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 6-9)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동역자(fellow workers)'란 용어는 '일을 같이 한다(working together)'는 뜻을 갖는 헬라어의 시네르고(synergo 探張蠢獲)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말은 17

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한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 주의의 논쟁에서 신인협동설(神人協働說, Synergism)로 발전한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5세기 초에 펠라기우스(Pelagius, 354~418)와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의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어, 종교개혁 시기인 16세기엔 루터(Martin Luther)와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 사이에 다시 불붙었고, 17세기에는 칼뱅(Jean Calvin, 1509~1564)과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아르미니우스의 자유의지와 결정에 대한 사상은 존 웨슬리(John Wesley)의 감리교회나 우리나라의 성결교 같은 데에서 포용되고 있지만, 칼뱅의 예정론을 따르는 장로교회 등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17세기에 칼뱅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부인하기 위해 시너지라는 단어를 새롭게 사용하며 신인협동설(synergism)을 부정하였다. 칼뱅주의자들은 구원과 재생의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령만이 전적으로 작용한다는 모너지즘(Monergism)의 개념 즉, 단동설(單動說)을 주장한다. 이런 종교적 단어이던 시너지가 1925년 이후 비종교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 상승작용을 의미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구원론에 대한 시너지의 이론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신학적인 노선에 따라 심한 대립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이 만들어 낸 불완전한 신학이라는 잣대에서 좌우되는 것이 타당한가? 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두 이론이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은 아닐까? 두 속성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인간의 자유의지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우리 각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닐까? 다음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나라(롬 10:9-10).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자유의지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가 아닐까?

호기심에 대해서 시너지의 개념은 더욱 중요하다. 호기심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며 선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거나 타락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즉 호기심을 심어주셨지만 그 대상과 방법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다. 우리에게 누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묵은 누룩을 넣은 부패하고 해로운 유교병을 만들어 먹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 모든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온전한 무교병을 만들어 바치고 먹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 거룩한 누룩을 만들어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

리를 확장시키려 노력한다. 이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공동체와 교회가 해야 사명은, 묵은 누룩과 타락하고 사악한 호기심을 몰아내고, 거룩한 누룩과 거룩한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받아들이고 육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 V. 묵은 누룩(타락한 호기심)

묵은 누룩은 사악한 호기심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음란하고, 금지된, 사악한 호기심은 순식간에 사회를 물들여 어둠의 권세에 노예가 되게 한다. 이런 어두움은 공동체 전체에 신속하게 퍼져 각종 죄악이 넘치게 된다. 처음에는 가치중립적인 호기심처럼 그럴듯하게 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누룩으로 위선적으로 나타나 서서히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잠식해 나간다.

1. 하와와 판도라. 묵은 누룩은 인류 최초의 여인은 하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유혹의 덫을 놓아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해왔다. 고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유대교와 그리스 신화에는 공교롭게도 타락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인류 최초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첫 여성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억제할 수 없으리만치 강렬한 호기심이 그 여인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이런 타락한 호기심 뒤엔 사탄의 속삭임의 유혹이 숨어있다. 뱀의 형태로 사탄은 하와에게 타락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그 금기된 과일을 먹을 경우에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한다.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보일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호기심은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의 대상인 것이다. 그 타락한 호기심에 빠진 결과 보이는 것은 자신과 남편의 벌거벗은 수치스런 모습이었고, 들리는 것은 서로의 부질없는 변명과, 모든 피조물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의 소리였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선택했을까?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첫째, 더 연약한 그릇(weaker vessel)을 유혹한다. 여인이 남성보다 지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판단력 등에서 열등하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둘째, 여인이 혼자 있을 때 유혹한다. 남편은 아마도 먼 발치에 있었고 과일나무는 바로 옆에 있었다. 여기에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다. 나 홀로 믿음을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다. 셋째, 전략이 흥미롭다. 사탄은 하와가 호기심에 끌려 그 선악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하와가 그 열매를 호기심에 의해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때 접근했는지도 모른다. 헨리는 여기에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을 그 나무에 가까이 가질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



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잠 4: 14-15). 사악하고 타락한 호기심을 피하는 것 중 하나는 그런 유혹이 생길만한 곳,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어두움의 장소와 물건과 사람과 생각을 아무런 생각과 준비와 전략이 없이 무심코 접할 기회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선물'이란 의미를 갖는 판도라는 인류 최초의 여성으로서,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여러 신들을 명령하여 창조한 여지였다. 헤파이스토스가 진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아테나가 생명과 옷을 주었으며,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선물했고, 헤르메스는 교활하고 배신하는 성질을 부여했다. 헤르메스가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어리석은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였다. 신들은 판도라에게 인류의 모든 재앙이 들어 있는 상자를 봉한 채로 갖고 있도록 했다. 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유일한 선은 '희망'뿐이었고 기타 인간의 모든 질병과 죄악이 모두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판도라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인해 결국 상자를 열고 만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나와 세상에 창궐하게 되었다. 판도라가 급히 다시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희망이라는 선물을 제외하곤 악한 모든 것이 다 세상이 퍼진 후였다. 이 두 이야기에서 호기심은 본인이 아닌 사탄과 올림푸스의 신들에 의해 조정되거나 부풀려진 것이다. 마치 묵은 누룩처럼 인류 최초의 여성들의 영혼 속에 퍼져 부패하게 만든 것이다. 묵은 누룩은 반죽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는 모든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판도라가 상자를 순간적인 실수로 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둘은 이미 마음 속에 억제할 수 없는 타락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뒤에서 누군가 조정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엔 엄청난 유혹의 암세포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타락한 호기심의 노예가 되어 병들어 갈 수 밖에 없다.

2. 룯의 부인과 피핑 탐: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판도라 상자 이후 인간들은 억제할 수 없는 타락한 호기심으로 많은 재난을 겪는다. 영국 속담에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Curiosity Killed the Cat)"는 말처럼, 잘못된 호기심은 본인의 영혼과 생명은 물론 그 공동체를 몰락시킨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손님으로 온 천사들에 성적인 음란한 호기심을 갖고 온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들어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룯을 위협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 남색(男色) 혹은 수간(獸姦) 등, 성도착증(性倒錯症)의 뜻을 갖는 영어 단어 '소도미(sodomy)'는 바로 소돔 지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타락하고 안하무인인 소돔과 고모라는 당대 가장 번성했던 문화 중 하나이다.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 적합할만큼 물과 풀이 풍부했던 곳이었다. 롯은 이 곳을 택해 아브라함을 떠났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약했던 롯의 선택은 그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타락한 이웃 사람들은 모두가 녹은 누룩과 같이 타락하고 사악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말종이었다. 그 가운데 어찌 의인 10명이 나올 수 있겠는가? 도시의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 하나님은 롯에게 명해 모든 식솔을 이끌고 그 타락한 도시에서 벗어나라고 명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다른 반응들을 볼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은 두 사위감이던 두 소돔의 젊은이는 롯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다. 롯과 두 딸은 무사히 안전한 곳까지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지만, 롯의 부인은 중간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만다. 과연 무엇이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을까? 그 녀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지도 모른다. 소돔이 과연 정말 무너질까? 뒤를 돌아보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것이 무슨 일일까? 아니면 서둘러 집에서 나오느라고 두고 온 패물이나 가구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을까?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우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각종 아쉬움과 호기심이 그 녀의 발목을 잡았을까? 남편과 딸의 손에 끌려 나온 롯의 부인도 사위 후보들 만큼이나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었는지도 모른다. 금지된 호기심은 그녀의 운명을 갈랐다. 중도하차. 금지된 호기심 버리지 못하는 자는 십 리도 못 가서 소금기둥이 된다. 오늘날 죽어버린 호수인 사해의 남쪽 끝에 남은 소금기둥의 흔적과 다른 잔해들이 그 소돔의 몰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금지된 호기심으로 장님이 된 사람도 있었다. 영국 중세시대인 11세기에 코벤트리 지역을 배경으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지방의 영주였던 남편의 학정과 가렴주구에 맞서 영지 농민을 보호하려 했던 고디바(Godiva) 부인은 세금을 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다.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한 바퀴 돌 만큼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감세정책을 펴겠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인 남편의 약속을 고디바 부인은 그대로 감행하기로 한다. 백성들을 위해 알몸으로 영지를 한 바퀴 도는 수치를 감내한다는 고디바 부인의 가혹한 마음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커튼을 치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톱이라는 어느 재단사는 금지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문틈'으로 고디바 부인을 훑쳐보다가 눈이 멀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전설에서 유래된 '피핑 탐 (Peeping Tom)이란 말은 '훑쳐보기 좋아하는 사람' 혹은 '관음증 병자(voyeur)'를 의미한다. 이런 호기심은 정신병적이고 위험한 편집증, 광기, 살기로 변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인 모든 이성을 대상으로 이런 관음증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특정한 대상에 대해 지속적이고 위협적으로 관음증을 보일 때 스토키(stalker)가 되어 납치, 강간, 살인, 시체훼손, 시체유기 등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런 범죄 뒤에는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치유와 보살핌이 없이는 이런 금지된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 VI. 거룩한 누룩(거룩한 호기심)

비록 세상이 타락한 호기심으로 어둠의 묵은 누룩이 온통 부풀어 부패한 떡들이 넘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방관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대적하는 것은 그런 묵은 누룩을 분별하여 제거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거룩한 누룩을 만들어 내 거룩한 떡을 생산해야 한다. 거룩한 누룩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룩한 호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들이 갖는 깨끗한 호기심을 말한다. 모든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 생각, 관습, 관행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과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를 통해 삶이 서서히 성화되어 간다. 거룩한 누룩이 가루 반죽 안에서 서서히 부풀어 올라 크고 아름다운 떡이 되듯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 자라는 거룩한 호기심이 거룩한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점차적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기이한 일을' 깨닫고 체험하며 서서히 내면적으로 변화되며 성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거룩한 호기심으로 성화과정을 이룬 인물들을 살펴보자.

1. 모세와 도마: 모세와 도마는 그다지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도자가 되기까지 여러 번의 사양과 변명이 있었고, 도마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호기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설명을 들은 뒤 호기심이 해결된 뒤 거룩한 사역을 담당했던 인물들이다. 궁금한 것은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자 궁금하게 여겨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며 현장으로 향했다. 단지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구경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곳을 찾았던 것이다. 이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모세의 신을 벗게 하신 후,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택하여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도 없었지만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 3:11)라며 계속하여 질문공세를 편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떻게 하리이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 어떻게 하리이까?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두려운 대상이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대답하시고 궁금증을 풀어주며 가르쳐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없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노하시면서 그의 형 이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모세의 부르심을 마무리하셨다. 그는 대충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형까지 동역자로 삼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모세는 광야 40년간의 긴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해결책을 찾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모세만큼이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 도마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놀랍기도 하고 궁금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자신의 궁금증을 말하였고 호기심을 표했을 것이다. 다시 여드레 후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도마의 호기심을 익히 알았던 예수님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 도마는 모든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새로운 신앙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다음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묘사한 훌륭한 신앙 고백이다. 도마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한 발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위대한 신앙고백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오순절 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계 선교에 나선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는 파르디아, 인도, 이디오피아 등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다. 일설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거쳐 한국에도 복음을 전파하였다고도 한다.

이렇게 의심 많고 호기심 많던 모세와 도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그 호기심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승화되었다. 그 둘은 자신의 의심과 호기심을 정작하게 표현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간구함으로써 결국 참 진리를 깨닫고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용기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가끔 목사의 설교나 강해를 의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거나 강요 받을 때가 있다. 이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습관에 빠져버린다면 그 목사나 강사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 모두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거룩한 호기심으로 이를 늘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안 뒤에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것이다. 모세나 도마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불신해서가 아니라,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호기심을 통해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한

단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비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책망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채워주시곤 큰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점을 잊어선 더욱 안 된다.

2.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거룩한 호기심으로 그 분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삭개오는 '순전' 혹은 '순수'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며 여리고 성의 부유한 세리였다. 그의 주 업무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제국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한 징수로 자신의 부를 누리는 일로 인해 매국노로서 경멸 받던 존재였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적대감과 멸시 천대에 대한 역사는 좀 더 길다. 주전 721년에 앗수르 왕은 북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으로 앗수르에 있는 질이 좋은 많은 인종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어 혼혈정책을 폈다. 이 후에도 알렉산더가 사마리아를 정복한 뒤 혼혈 정책을 강화하였다. 한편, 남 왕국 유다 역시 신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간 종살이하고 돌아오던 주전 587년에 2차 포로귀환 시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유대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사마리아 오경을 별도로 만들어 예루살렘과 분리하여 자신들의 예배를 그리심 산(Mount Gerizim)에서 드림으로 더욱 사이가 나빠졌다. 더욱이 유대인은 혈통을 중시해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거룩한) 선택 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은 물론 혼혈아를 저주하였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던 곳이 바로 그리심 산이 지척에 있는 수가(Sychar)라는 마을이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이런 역사적인 상처가 드러나는 만남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룩한 호기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누룩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삭개오는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고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다. 동족들의 싸늘하고 경멸하는 시선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을 것이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늘 궁금해 했을 것이다. 그에 대한 해답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고 게다가 선뜻 유대인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를 바라볼 처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그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모였는지, 제자들은 누구인지, 여러 의문과 호기심을 갖고 뿔나무 위를 올라간 것이다. 그의 거룩한 호기심이 그의 구

원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를 본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금전적으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다. 그는 자신이 토색한 부분에 대해 변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했다. 이 때 예수는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잃어버렸다 찾은 양으로 인정해주셨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삭개오처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늘 무언가 공백을 느꼈던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자신의 인생의 풀리지 않은 의문과 상처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때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난 것이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을 청할 때 그 여인은 그저 물 한 바가지 주고 자리를 뜨면 될 것을 평소에 물어놓았던 호기심 보따리를 풀게 된다. 그러나 그 호기심엔 원망과 적대감이 섞여있었다.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오래 묵은 불만이 터진 것이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 4:9). 그 여인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는커녕 더 호기심을 부추기는 예수의 말을 듣게 된다.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인의 실존적인 질문에 본질적인 대답을 하는 예수의 말은 그 여인에게는 평생 듣지 못하던 놀라운 말이었다. 자신과 물을 청하는 남성의 정체성을 그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정도로만 알던 그 여인에게는 양과 목자, 상처받은 자와 치유하는 자, 구원받아야 할 자와 구원할 자(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대화로 옮겨간다. 특히 여인은 '생수'라는 말에 더욱 귀가 솔깃했다. 자신은 평생 물을 길었지만 늘 목이 말랐고 피곤하기만 한 삶이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질문을 하게 된다. "주여 물 길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물에서 길어서 그릇으로 퍼 마시는 그런 샘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곧 야곱과 연관시키며 물에서 예수에게 관심을 옮긴다.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비로서 예수는 그 여자에게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며 메시아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후에도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 대한 예수님의 관찰과 지적으로 그 분이 비범한 분임을 알고 선지자로 고백한다. 그러나 아직 그 여인은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지는 않았다. 아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과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여인의 궁금증을 풀어 주신다. 진정한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이며 그 때가 이르리라고 설명해 주신다. 이 때 비로소 여인은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주제를 옮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시자 그 여인은 이를 믿었을 뿐 아니라 곧바로 수가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자로 변한다. 한 천대 받고 저주받던 상처 뿐이던 여인이 거룩한 호기심으로 인해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상처를 치유 받고, 구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변하는 거룩한 누룩이 된 것이다.

3. 예레미야와 여호수아: 거룩한 호기심은 삶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실패와 좌절에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그 분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 더 큰 일들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 당하였고, 이제 주전 595년 남왕국 유다마저 신바빌론에 의해 포위되어 곧 멸망될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적으로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놓여있던 순간이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다고 당시 유다왕 시드기야에 의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다. 그 기도를 응답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이고 일회적인 기도 제목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큰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신다. 과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계신다. 곧 거룩한 호기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이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 회복된 성벽을 다시 치료하며, 포로가 돌아오게 하시며 (6),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8), 이 수치와 패망의 성읍이 기쁜 이름이 되고 복과 평강이 열방에 떨칠 것이며(9), 이 땅에 다시 감사제를 드릴 때가오며(11), 황폐한 곳에 다시 양과 목자가 거하며(12),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를 보내서 공평과 정의가 이뤄지고 (15), 유다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언해 주셨다(16).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관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장 위태로운 상태의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된 '크고 비밀한 일들에 관심을 갖기를 당부하고 계신 것이다.

여호수아도 민족의 중요한 시기에 거룩한 호기심을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이다. 주전 1405년 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인 복지에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 도하 사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5). 그는 죄를 고백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

짚어 기도할 때 하나씩 '크고 비밀한 일'들이 펼쳐질 것을 믿었던 지도자였다. 그러나 현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의 장벽에 막혔던 것처럼,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요단강은 수심이 보통 1미터였지만 지금 추수 때에는 34 미터의 깊은 수위였다. 그러나 거룩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바라보던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를 멘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한다. 법궤 안에는 광야 생활 40년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거룩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지도자 모세의 싹 난 지팡이,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가 든 항아리,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돌 판 두 개가 홍해와 요단강 사이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법궤로부터 2,000규빗(약 900미터) 뒤로 떨어져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시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 물에 적시자, '기이한 일, 곧 '거룩한 일'이 벌어졌다. 곧 강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마른 땅에 생기자 온 백성들이 건너가는 역사가 벌어졌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레미아서 33장 3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개는 앞부분의 절반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제목을 적고 기도하며 그것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이뤄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감사헌금 얼마를 내고는 그 기도 제목을 모두 잊어버린다. 그 기도 제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불평과 원망으로 투덜대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제목보다는 그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해 주고 싶으신 것이 따로 있다.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선 무엇일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를 매일같이 알고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거룩한 호기심이다.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눈앞에 보듯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천국의 삶을 맛보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호기심이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외쳤듯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씩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VII. 호기심과 일반 은총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묵은 누룩이 얹어서 성결하다. 반면에 거룩한 누룩, 즉 거룩한 호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엔 부족하다. 그러나 바탕이 깨끗한 곳에서는 거룩한 지적 호기심이 커질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이 인도할 때 곧바로 영적인 성장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순수한 과학적, 탐구적, 문제해결 성격의 호기심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호기심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절대자에 대한 거룩한 영성을 다 갖고 있다. 이것은 일반은총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분 자신은 물론 그 분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불어넣어 주셨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미 그 호기심조차 같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아담이 호기심을 갖고 모든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었고 모든 식물에 관심을 갖고 돌보았을 것이다. 그 생기 속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존경심을 표하며,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풀고자 알고자 하는 마음 역시 들어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생기를 통해 불어넣어 주신 호기심을 통해 인간은 지적인 성장을 이룬다. 얼마전 SBS에서 황수관 박사를 중심으로 몇 년간 진행했던 "호기심 천국"이란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호기심 해결사"(MythBusters), KBS 1TV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KBS 2TV의 "비타민" "위대한 밥상" 등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평소에 궁금해 하던 현상과 일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매우 과학적이고, 실험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설명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교양과 지식을 얻는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중간중간 불필요한 멘트나 진화론적인 이론 등이 포함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가치중립적인 호기심에 해당한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나 MBC의 "PD 수첩" 등은 어떤 이슈에 관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며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광의에서 보면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왜 그런 호기심들을 채워주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기심 천국이다. 2008년 4월 4일자 문화일보의 김영번 기자의 "호기심은 지식욕" '테스트 베드'의 메카로'라는 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호기심이 세계의 주요 신제품을 테스트하는 이른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로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왕성한 호기심 덕분에 호기심의 나라인 한국은 테스트 베드(test bed) 국가로 꼽힌다고 한다. 인텔의 노트북 컴퓨터, 올림푸스와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도요타의 자동차로부터 스타벅스의 그린티 라테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기업의 히트상품들은 모두 한국인의 손과 입을 최우선으로 거쳐 일반 소비자에게 소개된다고 한다. 김 기자는 이어 한국의 왕성한 호기심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 개화기에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기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호기심이다. 제5대 조선교구장을 지낸 프랑스 선교사 다블뤼 신부는 "조선인들은 호기심이 많아 가장 작은 일 하나도 알고 싶어하며, 또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인은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어린아이 같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은 "한국인의 호기심이 지식정보사회의 원동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마도 금속활자의 발명, 한글 창제, 측우기, IT 산업 등의 발전도 이런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 VIII.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묵은 누룩이 온 떡 반죽을 망치듯 타락하고 사악한 호기심이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전에 분별하고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와와 판도라가 억제할 수 없이 강렬한 타락한 호기심이 자신은 물론 남편과 온 인류와 하나님의 피조물을 더럽혔고 고통에 빠지게 했다. 그 이후 인류는 더욱 타락한 호기심으로 돈벌이를 하고 쾌락 속에 빠지는 역사를 오늘날까지 진행해 왔다. 소돔 사람들과 롯의 부인과 피땀 탐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음란과 패역한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길 때 결국 묵은 누룩이 되어 사회에 공포와 파멸을 몰고 오거나 스스로 멸망당할 존재가 된다. 이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 패역한 자들을 홍수와 지진과 불 벼락과 함락과 재앙과 패전과 포로 등으로 징계하며 누룩을 제거하여 오셨지만, 최후의 심판일 까지 여전히 그 세력들을 남겨 두셨다. 이것은 마치 가라지의 비유(마 13:24-30)에서 사탄의 자식을 상징하는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계속 알곡과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비슷하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반죽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의 추수 때까지 묵은 누룩과 거룩한 누룩을 같이 놓아둘 것이다. 문제는 서로 성장한다는 점이다. 가라지가 알곡과 같이 모두 크듯이 묵은 누룩도 서서히 반죽을 부풀린다는 점이다. 너무 커져서 그 떡을 모두 다 버려야 될 지경에 이르기 전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누룩으로 대신 반죽을 부풀려야 한다. 이래서 긴박성이 있는 것이다. 구원 받은 거룩한 자들은 이런 일에 그저 방관자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룩한 누룩과 호기심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거룩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과 건설에 앞장서며, 사마리아의 여인과 삭개오처럼 멸시 받고 천대 받던 주변 인물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 받아 하늘 나라의 건설에 앞장 설 수 있는 것이다.

건설적이고 거룩한 호기심이 바로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지구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사명을 인식하고 헌신하여야 할 단계가 왔다. 우리의 거룩한 호기심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너지를 이뤄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해 나가야 할 사역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공동으로 여러 상황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건설적

이고 객관적이고 교양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도 잊어선 안 된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며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반은총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부터 모든 인간은 거룩한 호기심을 품을 마음도 같이 DNA에 박혀 있다.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마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보듯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세속적이며 쓰레기 같은 것으로 멸시하는 홀리파가 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은총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여, 건전하고 교양적이고 건설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연구하며 만들어 나가는 영역을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이런 일반 호기심도 거룩한 호기심으로 승화되어 인류의 과학, 교육, 의학, 문화, 문명, 광고, 경제, 상업, 영화산업, 캐릭터 산업, 방송 및 언론, 언어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Bromiley, Geoffrey W. general ed. 4 vol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1.
-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Complete and Unabridged in One Volume*.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1.
- Otto, Rudolf., trans. By John. W. Harvey. *The Idea of the Holy: An Inquiry into the non-rational factor in the idea of the divine and its relation to the rational*. Oxford & New York: Oxford UP, 1958.
- Walvoord, John F. and Roy B. Zuck. ed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Victor Books, 1985.
- 낸시 레이 드모스(Nancy Leigh Demoss) 홍종락 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품 거룩함』. 생명의말씀사, 2006.
- 성기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주장)". 『목회와 신학』, 1992. 7월.
- 아가페 성경 사전 편찬위원회. 『아가페 성경사전』. 아가페출판사. 2006
- 안토니 A. 후크마. 류호준 역. 『개혁주의 종말론』.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요단출판사 번역위원회 역. 게르하르트 키틀,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 원 편저자. G. W. 브라밀리 영역편자. 『신약성서 신학사전: 키틀 단권 신약원어 신학사전』. 요단출판사. 1986.
- 이동환 편저. 『신구약 원어은유대사전』. 도서출판 로고스. 2003
- 이상훈. 노영상, 장경철 역.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 Lee, Sang Hyun. *The*

*Philosophical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Princeton UP, 1988.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